익산 인구 급감…'호남 3대 도시' 위상 흔들

7월말 인구 28만9808명…1년7개월만에 29만명 선 붕괴
20~39세 청년층 5468명 유출…지자체 시책 효과 못거둬

익산지역의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 호남 3대 도시의 위용을 잃을 처지에 처했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익산지역의 인구는 28만9808명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29만230명보다 422명이 감소했다.

익산지역 인구는 지난해 1월 29만9146명으로 30만명이 붕괴된 이후 인구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시의 인구는 지난 2017년 12월 30만187명을 기점으로 30만명 붕괴로 이어졌다.

지난해 1월 30만명이 붕괴된 후 같은 해 6월 29만6372명으로 감소했으며 12월에는 29만4062명을 기록했다.

29만명 마지노선을 지켜오던 익산지역 인구는 올 7월 말을 기점으로 무너졌다.

인구의 감소는 지방세 감소와 행정기구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세 감소, 행정기구 축소,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등이 우려돼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익산시는 각종 시책 추진을 통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이를 막지 못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세부터 39세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은 지난 2017년 12월 7만4670명을 기록했으나 이듬해인 지난해 1월 7만4200명, 7월 7만2519명, 12월 7만1570명, 올해 1월 7만1056명, 7월 6만9202명으로 집계돼 유출이 가속화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청년정착을 위한 눈높이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창 복분자주 美 뉴욕 시장 공략

'명작' 8t 수출

고창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한 복분자주가 미국 뉴욕 시장 수출길에 오른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6일 (농)국순당 고창명주가 자사 대표제품인 복분자주 '명작'을 미국 뉴욕으로 수출하기 위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을 했다. 〈사진〉

수출량은 8t(6400만원)이다.

이 업체는 명작 수출로 뉴욕지역 누적 수출액은 1억원을 넘어섰다.

명작 복분자주는 심원면 일대 황토지역에서 서해안 해풍을 맞고 자라 단맛과 신맛이 조화를 이룬다.

고창 복분자를 활용한 다양한 주류브랜드(명작, 선운, 빙탄복, 쿨샷 등)는 미국, 호주, 동남아 등지에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지역농가 수익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순창군, 내년 예산 편성 주민 목소리 반영

교통·일자리 분야 등 다음달 20일까지 주민참여 예산 공모

순창군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는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 공모는 오는 9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에 편성한다.

이와 관련 군은 최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 추진 방향 및 사업 공모 방안을 확정했다.

공모 대상 사업은 순창군 3대 비전인 '예산 5000억·관광객 500만·인구 4만 달성'을 위한 사업과 도로, 교통 등 주민편익 사업, 재난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분야다.

또 친환경 농업과 문화·관광, 장류 및 건강 장수 등 군정 전략사업과 관련된 분야도 신청할 수 있고, 순수 군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도 제안할 수 있다.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공모할 수 있고, 공모 방법은 순창군청 홈페이지(www.sunchang.go.kr)에 직접 제안하거나 군청 기획예산실과 읍·면 '주민참여예산 접수 및 상담창구'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노홍래 순창군 부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되고 실현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면서 "많은 분이 참여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 공모에는 총 35건에 84억1200만원 규모로 접수돼 이 중 22건의 사업이 예산에 반영됐다. 현재 42억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정읍시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9년 농업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42개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인력 및 조직, 사업성과, 임대료 수준, 수요자 만족도, 농기계정책 적합도 등 7개 항목, 16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정읍시는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 잇~다

동학혁명~현재까지 125년 보존가치 높은 이야기 발굴
市, 10월까지 콘텐츠 공모

남원시가 기억·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이야기를 모은다.

남원시에 따르면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과 관련된 콘텐츠를 모집하는 수집 공모전인 '남원 잇~다'를 진행한다.

수집대상은 남원과 관련된 창작 콘텐츠이다. 응모 콘텐츠는 동학 농민 혁명이 시작된 지난 1894년부터 현재까지 남원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 출품작은 순수 창작했거나 수집한 콘텐츠로 제한된다. 희망자는 응모 신청서와 저작권 동의서 등 지원 서류를 작성해 작품과 함께 남원시 총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1월 역사학자와 콘텐츠 제작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초빙한 전문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개최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대상(1명) 200만원, 금상(2명) 각 100만원, 은상(4명) 각 25만원의 남원사랑 상품권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2020년 초 남원다움관에 전시돼 방문객에게 선보인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다움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근현대의 이야기들을 새롭게 조명해 지역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 금동 고샘지구에 소재한 남원다움관은 보존·전시·휴식·체험 등의 기능을 합친 복합문화공간으로 오는 9월 정식 개관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